



# ‘링거투혼’ 나지완 “4강 포기 못해”

재활 한기주  
부활 날개짓

감기 몸살 불구하고 ‘한방 괴력’ 불방망이쇼  
올 시즌 부진 속죄... 기적의 레이스 시작

2009 한국시리즈의 영웅 나지완이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KIA 타이거즈는 겁없는 2년차 나지완의 끝내기 ‘한방’으로 12년 만에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어느 해보다 짜릿한 우승을 선뗀 나지완은 올 시즌 KIA의 중심타자로 특목히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나지완은 지난 겨울 포항 자울캠프에서 혹독한 실뺑이까지 감행하며 2010년을 준비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다. 3번 자리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과 달리 계속된 헛방망이질에 팀 성적도 함께 꺾혔다. 많은 공을 들였던 수비에서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나지완은 5월 20일 2군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1군에 복귀 한 뒤 6월 16·17일 결정적인 홈런을 터트리며 이를 연속 결승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지만 개막 후 6월까지 기록

한 홈런은 8개. 타율도 2할 초반대를 맴돌았다. 7월에는 13경기에 출전해 32타수 3안타, 0.094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치는 등 한국시리즈의 영웅은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올 시즌 침묵으로 일관했던 나지완이 방망이를 가다듬었다. 나지완은 지난주 삼성과의 주말 3연전에서 이를 연속 홈런을 터트렸다. 21일에 기록한 홈런은 2-4로 뒤지던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투런포였고, 22일에는 0-1의 전세를 뒤집는 역전 투런 홈런이었다. 몰살 감기로 링거를 맞아가면서까지 타석에 섰던 나지완이지만 두 경기에서 모두 팀이 패배를 기록하면서 홈런 두 개는 빛이 바래고 말았다.

나지완은 24일 4강 탈락의 기로에서 만난 롯데와의 경기에서 다시 한 번 괴력을 발휘했다. 1회 첫 타석에서 투런 홈런을 장식하며 세 경기 연속 홈런쇼를 이어간 나지완은 4-5로 끌려가던 8회초에는 좌측타장을 넘기는 2점 홈런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KIA는 나지완의 불방망이에 힘입어 사지에서 천금 같은 1승을 안고 돌아왔다. 감기 탓에 정상 컨디션은 아니지만 나지완은 링거 투혼 속에 속죄포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가을 프로야구 역사를 새로 쓴 한방의 주인공 나지완이 길었던 부진을 털고 팬들에게 가을의 기적을 선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피터팬’ 한기주의 부활의 날개짓이 시작됐다. 팔꿈치 수술로 재활을 해왔던 KIA 타이거즈 투수 한기주가 지난 24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송원대와의 3군 연습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했다. 5이닝을 소화한 한기주는 1피인타 무사사구 9탈삼진 무실점의 투구를 기록하며 실전 투입을 위한 순항을 시작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7km.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질을 시설했다. 2009년 10월23일 KS 7차전 이후 10개월만의 등판에 나선 한기주는 “80%의 힘으로 피칭을 했다. 피칭 후 통증도 없고 정상 컨디션을 찾은 것 같다. 비록 야마우에와의 경기였지만 오랜만에 마운드에 서니 많이 설레고 기분이 매우 좋았다”며 “앞으로 투구수를 늘려가 정상적인 피칭을 할 예정이다”고 피칭 소감을 밝혔다. 한기주는 지난해 11월20일 LA조브클리닉센터에서 오른쪽 팔꿈치 내측 인대 재건술과 골편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재활을 해왔다. 지난 5월 캐치볼을 시작한 한기주는 20m부터 점진적으로 거리를 늘려왔으며 현재는 정상피칭이 가능하다. 첫 피칭을 소화한 한기주는 28일 대불대의 3군 연습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70여개의 공을 던질 예정이다. 다음달 1일 또는 5일경에는 2군 경기에 출장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윤석민 ‘실투’ 후유증 어떡해!

두 차례 시구 논란 정신적 충격에 병원 행



KIA 타이거즈가 24일 적지 부산에서 실낱같은 4강 희망을 살리고 돌아왔다. 승자가 되어 돌아온 선수들이지만 LG와의 경기가 열린 2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 덕아웃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훈련도 평소보다 1시간 가량 늦게 시작했다. 전날 사지 경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온 탓이다. 24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KIA는 8회 나지완의 투런 홈런으로 극적인 역전극을 연출했다. 전세 뒤집기에 성공한 KIA는 윤석민을 조기 투입하며 승리 자키기에 나섰다. 사건은 9회 발생했다. 8회 세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웠던 윤석민이 9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남겨놓고 롯데 3번 조성환의 머리를 맞춰버린 것이다. 물론 고의성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2점차의 박빙에 4번 이대호까지 준비하고 있던 상황. 윤석민의 체인지업이 빠지면서 그대로 조성환의 머리에 맞고 말았다. 조성환이 쓰러지자 흥분한 관중들은 경기장에 쓰레기를 투척하면서 사지구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팬들의 야유와 함께 유리병까지 날아드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주 광주와의 경기에서 홍성흔이 윤석민의 공에 맞아 손등 골절을 당했던터라 롯데팬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경기가 끝난 후 윤석민이 모

자를 벗어 1루 관중석을 향해 정중하게 사과의 인사까지 하고 내려왔지만 불상사는 계속됐다. 구단 버스로 이동하던 선수들은 맥주 세례를 받기도 했다. 김선빈은 흥분한 롯데팬에게 왼쪽 어깨를 얻어맞으면서 25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윤석민은 두 차례 시구 논란에 휩싸인 윤석민

은 큰 충격을 받았다. 코치진은 이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그를 입원시켜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하게 했다. 머리를 얻어맞은 롯데 조성환도 2~3일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에 따라 입원 치료중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박주영 첼시 가나

英 언론 “영입 검토” 보도

프랑스 프로축구 무대에 서 뛰는 공격수 박주영(25, AS모나코)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영입 대상에 올라 있다고 영국 언론이 전했다. 영국 타블로이드 일간신문 더 선은 25일(이하 한국시간) 인터넷판에서 “첼시가 한국의 월드컵 스타 박주영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박주영의 대리인이 (지난 15일) 첼시-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의 프리미어리그 2010-2011 시즌 개막전이 열리기 전 카를로 안첼로티 첼시 감독과 구단 고위 임원을 만났다. 첼시는 모나코가 제시한 800만 파운드(약 147억 원)의 이적료를 내고 박주영을 영입할지를 앞으로 48시간 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선은 또 “첼시는 박주영의 영입으로 극동아시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첼시는 내년 여름 프리시즌 투어 때 태국 방콕에서 태국 올스타팀과 친선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이때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면서 “첼시는 2012-2013시즌이면 끝나는 한국 대기업 삼성과 후원 계약도 연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선을 비롯한 영국 언론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을 비롯해 토트넘, 풀럼, 애스턴 빌라, 에버턴 등에서 박주영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를 잇달아 내놓았지만, 박주영 측에서는 구체적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왔다. 유럽 프로축구 이적 마감은 이달 말이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싱가포르 스포츠스쿨 사격장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올림픽 10m 공기소총 여자 결선전에서 한국 고도원(왼쪽 두번째)이 시격 준비를 하고 있다. 고도원은 합계 500.1점을 쏘 금메달을 땀다. /연합뉴스

## ‘여고생 총잡이’ 고도원 ‘金 명중’

공기소총 본선 결선 합계 500.1점 쏘

한국 청소년 올림픽 막판 상승세

사격이 제1회 청소년올림픽에서 사흘 연속 메달을 수확하며 한국 선수단의 막판 상승세를 이끌었다. 여자 고등부 최고의 명사수인 고도원(17·압구정고)은 25일 싱가포르 스포츠스쿨 사격장에서 열린 공기소총 여자부에서 본선과 결선 합계 500.1점을 쏘 체코의 가브리엘라 보그나로바(498.6점)를 1.5점 차이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 4명이 출전한 한국 사격은 여자 공기권총의 김장미(18·인천 예일고)가 금메달, 남자 공기권총의 최대환(17·정선고)은 동메달을 땀 때 이어 고도원도 금메달을 명중시켜 최근 주춤했던 ‘효자 종목’의 명성을 되찾을 전망이다. 고도원은 본선에서 400점 만점에 397점을 쏘지만 무려 399점을 쏘 독일의 이본 실로테베크에게 2점 뒤져 보그나로바와 함께 공동 2위에

결선에 올랐다. 하지만 결선 첫 발과 두번째 발에서 9.9점과 10.4점을 잇따라 쏘 고도원은 각각 8.1점과 10.1점으로 난조를 보인 실로테베크를 0.1점 차이로 제치고 단독 1위로 나섰다. 고도원은 세번째 발에서도 10.5점을 쏘 9.1점에 그친 실로테베크를 1.5점 차로 앞선 뒤 끝까지 리드를 지켜 청소년 최고의 명사수가 됐다.

스위스의 야스민 미슬레는 본선과 결선 합계 498.1점을 동메달을 차지했고 실로테베크는 497.8점으로 4위로 밀려났다. 한국은 고도원의 활약으로 이날 현재 금메달 1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기록해 중국(금29, 은16, 동5개)과 러시아(금16, 은13, 동10개)에 이어 종합 3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 광주 상무 내일 팬사인회

광주 상무 선수단이 27일 오후 2시 롯데아울렛 월드컵점 1층 광장에서 팬 사인회를 갖는다. 이날 사인회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2011년 출범하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 ‘1시민 1주짓가’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정우를 비롯해 최성국·최원권·김동현이 참가한다. 지난 6월11일부터 7월20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시민구 1차 공모에서는 총 1만144명이 10억5600만 원(21만1230주)을 청약했다.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2차 공모주 청약에 들어간다. 한편 팬 사인회에 참가한 상무 선수단은 28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1위 경남과 2010 K-리그 19라운드 대결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